



"상전은 말은 믿고 살아도 종은 믿고 못 산다"

뜻: 충성스러운 동물은 믿을 수 있어도, 사람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믿기 어렵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불신 · 배신 · 인간관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상	전	은	↓	말	은	↓	믿	고	↓	살	아	도
종	은	↓	믿	고	↓	못	↓	산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상	전	은	↓	말	은	↓	믿	고	↓	살	아	도
종	은	↓	믿	고	↓	못	↓	산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↓			↓			
			↓			↓			↓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ㅏㅇ][ㅁㅇ][ㄹㄱ][ㅅㅇㄷ][ㅈㅇ][ㄹㄱ][ㅁ][ㅅㄷ]

웹에서 보기

